지역사회(Community) 연계를 통한 리질리언스 구축 가능성

The Possibilities of Building Resilience Through Networks of Local Communities

송 혜 승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학과 박사수료 - 주저자)
이 명 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Abstract

Hyeseung Song / Myeong-Hun Le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the possibilities of building resilie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among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connection of communities based on local industrial resources and human resources and suggests implications for efficient community network syste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munity networks affect building resilience which is related to diversity and redundancy.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etworks of local communities based on not only local government but also civil society and deal with current and future issues. Third, we need organizations to support the networks of local communities continuously.

주 제 어: 리질리언스, 지역사회 연계, 일본사례, 다양성, 네트워크 예비경로

Keywords: Resilience, Networks of Local Communities, Case studies of Japan, Diversity, Redundancy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발생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성격 또한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과거와 다르게 사회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IT 기술 등의 발전은 사회문제의 파급력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최근 이러한 성격의 지역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Resilience(이하 '리질리언스')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다(前田昌弘 외, 2015). 도시계획 분야에서 리질리언스

를 주목한 이유는 지역사회의 혼란에 저항하거나, 혼란에 따른 사회변화에 지역 스스로가 적응(reorganizing itself)할 수 있는 역량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Walker et al., 2002).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루어진 리질리언스 관련 연구들은 리질리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광범위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Godschalk(2003)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적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강조하였고, Pisano(2012)와 前田昌弘 외(2015)는 지역 자원과 공동체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早田宰(2015)는 지역사회가 사회·환경적으로 다른 지역사회와 비교하여 취약한 성격을 가질 때 멀티레벨 거버넌스(Multi-level-governance)의 구축을 통해 지역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여기서 사회·환경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혹은 갑작스런 재난 등으로 지역사회가 지역 문제에 스스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갑작스러운 충격과 지속적인 쇠퇴를 경험한 지역사회는 물리적으로나 사회 환경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사회의 연계를 더욱 강조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동일본 대지진(2011) 이후 평상시에 이루어진 지역 간의 교류 활동이 재해지역에 대한 지원활동으로 발전하였고, 재해지역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들 간의 네트워크도 다수 발생하였다. 다양한 지역들 간의 연계를 통해 현재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지역사회 교류는 민간차원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들 간의 연계를 통해 리질리언스 역량이 구축가능하다는 것을 가설로 설정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일본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중심의 지역 연계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의 가설을 확인하고, 국내 지역연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흐름 및 방법

본 연구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역의 리질리언스 구축 가능성과 그 효과를 진단하고, 국내의 지역사회들 간의 연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연구는 첫 번째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구축 가능한 리질리언스 역량을 고찰한다. 둘째, 지역사회 간 연계 사례를 고찰하여 실제로 리질리언스 역량이 구축되었는지 검토한다. 셋째, 리질리언스 역량이 제대로 기능했는지 진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지속시키기 위한 지원 시스템이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 지역연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는 이론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사례분석은 웹사이트 검색과 일본 정부에서 제공하는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연구 개념 정리

1) 리질리언스(Resilience) 개념

학술적인 관점에서 리질리언스는 생태시스템 공학 분야의 응용수학자인 Holling에 의해 최초로 제시되었다. Holling(1973)은 리질리언스에 대해 평상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생태계가 천재지변이나 다양한 환경변화에 견디어내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 내부의 역량으로 정의하였다(전대욱, 2015).

Adger(2003)은 리질리언스를 변화에 저항하거나 적응하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개념까지 확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전유미, 2016). Folke(2006)는 리질리언스를 '혼란이나 교란을 흡수하고 기본적인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는 시스템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공학적, 생태적, 사회생태적 리질리언스로 구분하였다(하수정 외, 2014).

Foster(2007)는 리질리언스를 '장애(Disturbance)를 예상, 준비, 대응, 복구하는 지역의 능력'으로 정의하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잠재적 성격의 리질리언스(Intentional resilience)'를 언급하였다(강상준 외, 2013). 前田昌弘 외(2015)는 리질리언스를 불확실한 변화에 적응하면서 기본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잠재적인 성질로서의 리질리언스 역량인 'Diversity'와 'Redundancy'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리질리언스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역 문제 및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충격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 간 연계를 통해 지역의 현재와 미래 문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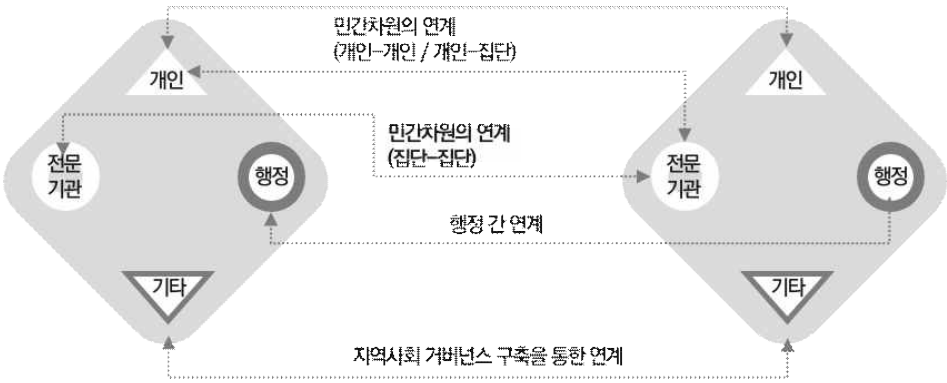
2) 지역사회 연계(Networks of Local Communities) 개념

본 연구는 지역의 리질리언스 구축 관점에서 광역적 지역사회 간의 연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광역적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 그 의미를 정의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지역사회(Community)를 특정 지역을 공유하는 심리적으로 결합된 사회집단으로 정의하였다(문창용·나주몽, 2013). 최성태(2012)는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건물소유자, 세입자, 상가세입자를 포함하여 시민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지역에 애착을 가진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Community)를 일정한 장소를 공유하며 지역에 대한 공동의식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집단을 대표하는 용어로 정의하고, 개인(거주자, 상인), 특정조직

(지역단체, 전문기관, 비영리 조직 등), 행정기관 등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지역사회 연계란 〈그림 1〉의 개념도처럼 서로 다른 지역사회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이 각 지역의 활성화와 위기 대응을 목표로 광역적이고 다양한 성격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지역사회 간의 연계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행정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계를 포함하여 민간 차원(개인-개인, 개인-집단, 집단-집단)에서의 연계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연계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 지역사회 연계 개념도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본 연구는 광역적 지역사회 연계가 지역의 리질리언스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가설로 설정하였다. 기존의 지역 연계 관련 연구 및 리질리언스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들을 고찰하여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지역사회들의 연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산업 및 지리적 연계성이 높은 지역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방 중소도시의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연구(최병두, 2015)와 도농교류를 통한 도시 농촌 상생방안에 관한연구(최정민, 2013),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박은병 외, 2012) 등이 이루어졌다. 문영규 외(2009)는 지역의 위기대응 측면에서 광역적 성격의 거버넌스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한 역량을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지역사회 연계 방식의 공통된 특징은 지역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행정기관 중심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영규 외(2009)는 다른 연구와 차별적으로 지역 문제 대응을 위한 광역적인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지만, 특정 지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리질리언스 연구의 경우 거버넌스 구축 형태와 지역 공동체 간의 협력관계 구조에 대해 고찰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는 국립방재연구원(2012)과 早田宰

(2015)의 연구가 있다. 국립방재연구원(2012)은 정부-지방자치단체-주민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주민참여 프레임워크의 개발을 통한 리질리언스 확보 방안을 제시하였다. 早田宰(2015)는 리질리언스 구성요소의 적용범위를 지역 단위의 공동체와 국가단위의 공동체, 국제단위의 공동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거버넌스 범위에 따라 리질리언스 구성요소별 적용 및 활용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리질리언스 연구 중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간의 협력관계를 네트워크 이론을 토대로 고찰한 연구의 경우 본 연구와의 관련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연구의 차별성과 더불어 주요 착안점을 함께 도출하였다. 각 연구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Tobin et al.(2014)은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시 복잡한 연계 구조를 가진 지역 거버넌스의 리질리언스가 높다는 것을 규명하였고, 前田昌弘 외(2015)는 지역사회 공동체 간의 연계 구조의 성격이 다양성(Diversity)과 추가 경로(Redundancy)를 확보할 때 리질리언스가 확보된다고 설명하였다. Baek, J. et al.(2015)은 농산물 생산자들 간의 연계 구조를 통해 커뮤니티 리질리언스의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생산자 그룹 간의 거리가 멀수록, 다양성(Diversity)과 추가 경로(Redundancy)가 결여되어 있을수록 연계 체계의 붕괴가 쉽게 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Jung, K et al.(2015)은 조직들 간의 계층적·수평적 협업구조의 유대(bonding) 및 연계(bridging)전략을 분석하고, 비상 관리 네트워크 간의 계층적인 연계(bridging) 전략이 조직들의 리질리언스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Jung et al.(2017)은 재난 발생 시 기존 조직의 연계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히고, 조직 간의 직접적인 연계와 집단 네트워크 안에서의 자원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Jung(2017)은 내부 조직 간의 연계 구조 형태와 리질리언스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주요 그룹 사이에 있는 조직(bridging strategy)이 재난 발생 시 중요한 자원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때문에 리질리언스 확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지역사회 및 조직들 간의 협력관계 구조에 대해 고찰한 연구들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 그룹들의 연계를 강조하였으며, 그룹 간의 연계는 위기 상황이나 그룹 간의 성격 차이로 인하여 연계체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계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그룹들의 성격측면에서 살펴보면 早田宰(2015)의 연구를 제외하고 특정 공간적 범위 내에 속해있는 그룹들 간의 연계 체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관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행정 중심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광역적 지역사회 연계에 대해 고찰한다.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행정기관의 역할에 주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는 광역적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리질리언스 구축에 대해 고찰한다. 기존 커뮤니티 리질리언스 연구에서 조직 및 지역들 간의 연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공간적 범위가 대부분 시(市) 또는 마을 단위와 같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의 지역사회 연계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 대응이 목적이 아닌 연계 관계에 있는 지역들이 현재와 미래의 문

제에 상호보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점은 리질리언스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차별성을 가진다.

네트워크 이론에 기반 하여 지역 공동체의 협력관계 구조를 고찰한 리질리언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징을 본 연구의 착안점으로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그룹들 간의 연계 체계가 형성되더라도 환경적·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연계 체계는 쉽게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룹을 예비적으로 확보(bridging, redundancy)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자원이 필요하므로 연계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들의 성격 역시 다양(diversity)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로 도출된 예비경로(redundancy)와 다양성(diversity)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들을 추가로 고찰하여 구성요소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 본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진단할 필요가 있다.

〈표 1〉 선행연구 정리 및 연구 관점의 차별성

구분	저자		내용
지역사회 연계	최병두(2015)		네트워크도시이론과 영남권 발전 전망
	최정민(2013)		도농교류 활동 유형 및 의식조사
	박은병 외(2012)		국제교류를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문영규 외(2009)		광역적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방안
커뮤니티 리질리언스	거버넌스 구축	국립방재연구원 (2012)	지역 공동체 중심의 방재리질리언스 구축 방안
		早田宰 (2015)	커뮤니티 리질리언스 요소와 지역사회 활동 범위
	협력관계 구조 (네트워크 이론)	Tobin et al. (2014)	커뮤니티 리질리언스와 사회적 관계망의 관계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진단
		前田昌弘 외 (2015)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성격과 커뮤니티 리질리언스 확보 가능성
		Baek et al. (2015)	커뮤니티 리질리언스 제고를 위한 사회구성원 간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방향
		Jung et al. (2015)	조직 간 계층적·수평적 협업구조의 유대(bonding) 및 연계(bridging)전략
		Jung et al. (2017)	재난 발생 시 기존 조직의 연계 체계 변화
		Jung (2017)	조직들 간의 연계 구조 형태와 리질리언스 관계
본 연구(2017)		차별성	광역적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리질리언스 역량 구축
		착안점 (네트워크 이론)	연계 구조 성격의 다양성(diversity)과 네트워크 예비경로(redundancy) 확보

Ⅲ. 분석의 틀 설정

1.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역량 도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역의 리질리언스 역량 구축 가능성과 지역에 미친 영향력을 진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리질리언스 역량과 역량별 특징을 고찰하였다. 〈표 2〉는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역량 도출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리질리언스 관련 연구 18개를 검토하여 총 17개의 리질리언스 역량을 도출하였다. 18개의 선행연구에서 출현 빈도수가 5개 이상인 리질리언스 역량 9개를 대상으로 역량의 기능 및 성격이 유사한 Rapidity, Resourcefulness, Flexibility를 통합하여 7개의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역량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표 2〉 지역사회의 리질리언스 역량 도출 과정

리질리언스 역량	A	B	C	D	E	F	G	빈도수
Robustness 유지 능력(내구성)	●		●			●	●	15
Resourcefulness 자원 동원력				●		●	●	14
Efficiency 효율성	●		●					2
Flexibility 유연성				●		●		7
Integration, Interdependence 통합성	●			●		●		8
Tightness of feedback 견고한 피드백		●						1
Rapidity/Responsiveness 신속한 대응				●			●	8
Inclusiveness 포용성						●		6
Collaboration 협력성	●							1
Diversity 다양성	●	●	●	●	●			5
Redundancy 대체 능력	●			●	●	●	●	16
Safe Failure 안전한 실패				●				1
Learning, Reflectiveness 학습 능력			●	●		●		8
Adaptability적응력	●							1
Modularity 모듈성, 독립성		●						1
Innovation 혁신성			●					1
Autonomy 자율성	●							1

A. Godschalk(2003), B. Pisano(2012), C. Galderisi(2014), D. Yanez(2013), E. 前田昌弘(2015), F. Da Silva(2014), ADB(2014), 전대욱(2015), 早田宰(2015), 전유미(2016), Spaans(2017), G. Bruneau(2003), O'Rourke(2007), 하수정(2014), 전대욱(2014), 최남희(2015), 김정곤(2016), 정은주(2016) (※공동저자명 생략)

기존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7개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역량에 대한 특징을 고찰하고, 그 내용을 〈표 3〉에 정리하였다. 지역사회 범위를 기준으로 단일 지역사회에서 확보해야 하는 역량은 학습 능력, 포용력, 사회적 결속력, 주요 기능의 유지 능력으로 나타났고, 광역적 지역사회들 간의 연계를 통해 구축해야 하는 역량은 학습 능력, 신속한 자원 활용 능력, 다양성 및 네트워크의 예비경로였다. 역량의 성격을 고려한 결과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필요한 역량은 신속한 자원 활용 능력과 지역의 주요 기능 등에 대한 유지 능력 이었고, 나머지는 평상시에 구축해야 하는 역량이었다.

〈표 3〉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역량 성격

리질리언스 역량	지역사회 범위		역량 성격	
	단일 지역사회	지역사회 연계	즉각적	잠재적
학습 능력 (Learning capacity)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경제대안 마련	사회적으로 학습된 시민네트워크 확대	-	●
신속한 자원 활용 능력 (Rapidity/Flexibility/Resourcefulness)	-	협력자·기부자 등의 적절한 대응 실행	●	-
포용력 (Inclusiveness)	지역구성원 형평성	-	-	●
사회적 결속 (Integration)	상호소통·연계성	-	-	●
유지 능력 (Robustness)	지역가치·자원 보호	-	●	-
다양성 (Diversity)	-	다양한 지역사회	-	●
네트워크 예비경로 (Redundancy)	-	다양한 네트워크 경로	-	●

※지역사회 범위 기준은 早田宰(2015)의 연구를 참고하여 분류하였고, 역량의 성격은 前田昌弘 외(2015)의 연구를 기준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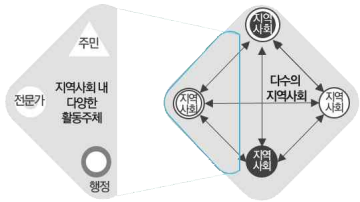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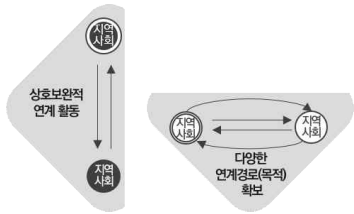
2. 사례 분석 기준

지역사회들 간의 광역적인 연계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표 3〉의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역량을 기준으로 분석항목을 설정하였다. 주요 리질리언스 역량으로 도출된 7가지 역량 중 평상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구축이 가능한 역량으로 다양성(Diversity)과 네트워크 예비 경로(Redundancy)를 선정하였다. 학습 능력과 신속한 자원 활용 능력은 사례분석만으로 진단하기 어려운 역량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前田昌弘 외, 2015).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민간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가 리질리언스 역량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의 현재 문제와 미래 문제에 동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분석기준을 〈표 4〉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리질리언스 역량 구축여부를 진단한다. 다양성(Diversity)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성격의 활동주체들이 다른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있는지, 다수의 지역사회가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통해 확

인한다. 네트워크 예비 경로(Redundancy)는 지역사회 간의 활동이 상호보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지역사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 간의 연계활동이 지역의 현재 문제와 미래 발생 가능한 문제 대응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확인한다. 지원 시스템을 고찰하는 이유는 국내의 경우 민간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행정 및 관련기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표 4〉 광역적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사례 분석 기준

분석항목	분석기준	
리질리언스 역량		
	다양성(Diversity) 다양한 성격의 지역사회 다수의 지역사회 간의 연계	네트워크 예비경로(Redundancy) 상호보완적 지역사회 관계 연계활동 경로의 다양성
지역사회 연계 효과	지역쇠퇴와 같이 지역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와 변화에 대응	
	재해·재난 등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미래 문제에 대응	
지원 시스템	행정기관 등의 지원제도 및 정책 유무	

Ⅳ. 광역적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리질리언스 구축 사례

광역적 차원의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리질리언스 역량의 구축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는 산업자원을 매개로 다수의 지역사회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쿠로시오 네트워크' 사례와, 인적자원을 매개로 다양한 지역사회들을 연계하고 있는 비영리 조직 ETIC의 '오른팔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였다.

1. 쿠로시오 네트워크: 산업자원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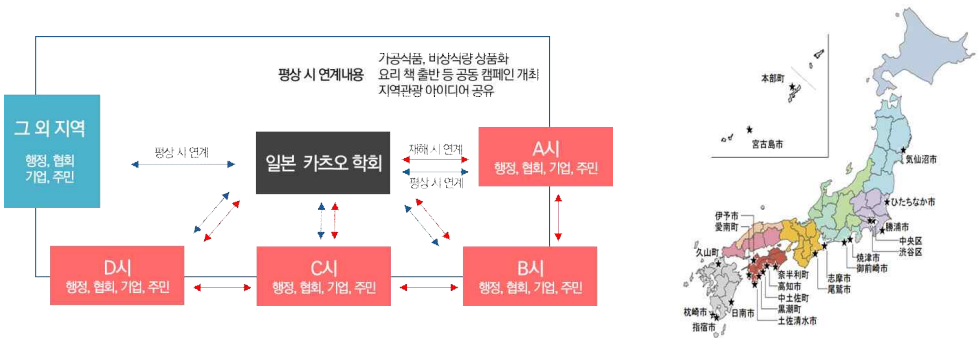
쿠로시오(黒潮) 네트워크는 일본 열도 남측에 면하고 있는 지역들의 공통된 산업 자원인 카츠오(かつお, 가다랑어)를 매개로 카츠오 산업 활성화와 지역 방재를 목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이다. 각 지역 간의 교류는 카츠오 학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회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거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등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1) 리질리언스 역량 구축

쿠로시오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일본 카츠오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 간의 연계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지역사회 연결망이다. 일반적으로 각 지역사회는 행정, 협회, 기업, 주민 등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카츠오 학회에 가입하고 있으며, 개인회원의 자격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2017년 3월 기준으로 학회 개인회원은 134명이며, 35개 단체(협의회), 5개의 찬조회원 단체 등이 가입되어 있다. 〈그림 2〉의 일본 지도 위에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은 2013년 기준으로 개인회원을 제외한 카츠오 학회에 가입되어 협의회들이 속해있는 지역들을 표시한 것이며, 개념도는 카츠오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들 간의 연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리질리언스 역량 중 다양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카츠오 학회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 협의회 수가 35개이고, 〈그림 2〉의 개념도에 나타난 것처럼 각 지역들이 복수의 지역사회들과 연계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前田昌弘 외 (2015)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내 활동주체가 기존보다 하나만 증가하더라도 다양성을 획득했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츠오 학회를 통해 광역적인 연계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사회들의 구성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민, 기업, NPO, 대학교수 등 카츠오 산업과 관련 있는 다양한 성격의 주체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역사회 구성원 측면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간의 네트워크 경로를 살펴보면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 모두 연계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네트워크 경로의 경우 지역사회들이 직접적인 연계경로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카츠오 학회에 가입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경우 학회를 통해 모두 간접적인 네트워크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들 간 다양한 예비경로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자료: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재작성

〈그림 2〉 쿠로시오 네트워크 연계 구조

2) 광역적 지역사회 간 연계 효과

쿠로시오 네트워크 내 지역사회들의 연계 방식을 고찰한 결과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네트워크의 예비경로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질리언스 역량이 구축된 것을 확인하였다. 광역적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구축된 리질리언스 역량이 실제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역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전개한 활동과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활동은 지역사회 여성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류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실제 어촌의 경우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남성들이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다. 지역 산업 활성화와 같은 지역의 일상적 과제와 갑작스런 재난에 실제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주체는 어촌의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여성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하였다. 쿠로시오 네트워크 내 지역사회들은 "엄마들의 모임(かあちゃんサミット)"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각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카츠오 조리법을 공유하고, 민박사업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함께 모색하였다. 지역의 일상적인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주요 주체인 여성들이 지역 문제를 공유하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주체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두 번째 활동은 카츠오 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목적으로 광역적 차원의 민·관 연합이 구성되어 카츠오 실태조사, 연구, 정보교환 등을 진행한 것이다. 연구 활동은 카츠오 학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수집한 정보와 연구결과 등은 학회 회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산업 실태조사가 광역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과 그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카츠오 학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포럼을 비롯하여 각종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쓰나미(つなみ, 지진해일)와 지진은 카츠오 산업에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쿠로시오(黑潮) 네트워크 내 지역사회들은 재난에 대비한 방재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경험한 지역사회는 당시의 경험을 다른 지역사회들과 공유하고, 쓰나미 발생 시의 피난 경로 확보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한다. 특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동시 다발적으로 재난이 발생할 확률이 낮은 지역들 간 지원해야 하는 산업 자원 및 도구, 구호물품 등을 사전에 정하고 행정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3) 지원 시스템

동일본 대지진 이후 광역적 지역사회 간 연계 효과를 경험한 일본 정부는 향후 발생 가능한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광역적 지역 간 공조 추진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 간 공조 추진사업이란 민간 기업 및 지역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광역적으로 지역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선진

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역 및 단체에게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 혹은 조직들이 광역적 지역 간 공조 추진사업에 응모를 하면 국토교통성에서 적합성, 선진성, 지속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심사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을 선택한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와 같은 지역적 피해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적은 복수의 지역들이 서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행정·민간기업·NPO 등의 다양한 주체가 지역을 넘어 광역적으로 연계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경험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재난 발생 시 재해지역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에도 교류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지역 간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쿠로시오 네트워크 활동의 주요 중심축인 카츠오 학회는 2013년도에 국토교통성으로부터 지역사회 간 연계활동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광역적 지역 간 공조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었다. 국토교통성의 광역적 지역 간 공조추진 사업 선정기준을 근거로 쿠로시오 네트워크가 행정·민간·NPO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광역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경험 등의 유기적인 연결과 재난 발생 시 재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평소에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광역적 지역 간 공조 추진사업의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총 22개의 사업이 응모하여 최종 11개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8개 사업 중 6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사업의 총 예산규모는 7,500만 엔(약 7억 5천만 원)으로 한 사업 당 500만 엔(약 5천만 원)에서 1,000만 엔(약 1억 원)까지 지원하였다(2013년 기준). 지원을 받은 사업들은 1년 동안의 활동 내용에 대해 보고회 개최 및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일본 국토교통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례 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연계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에서 카츠오 학회 활동에 1년 동안 지원한 예산은 약 8백만 엔(약 8천만 원)이었다. 카츠오 학회는 예산 지원금으로 카츠오 포럼, 워크숍, 요리대회 등의 행사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였다.

2. ETIC의 오른팔 프로그램: 인적자원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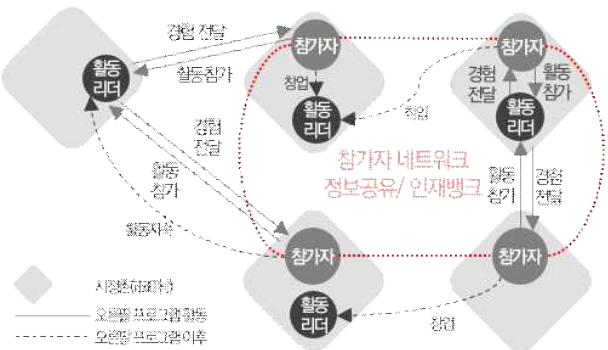
右腕プログラム(미기우데 프로그램, 이하 '오른팔 프로그램')은 일본의 비영리 조직 ETIC (Enterprise Training for Innovation Communities)가 전개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ETIC는 1993년도에 설립된 비영리조직(NPO)으로 지역활성화 및 인재양성을 위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오른팔 프로그램'은 ETIC 프로그램 중 인적자원을 통해 지역사회들을 연계하고 있는 사례로 일본의 동북(東北)지역인 후쿠시마(福島), 미야기(宮城), 이와테(岩手), 아오모리(青森)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재해지역의 복구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었다.

활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든 활동에는 활동을 주도하는 '리더'가 존재하며, 활동이 전개될수록 리더에게 모든 일이 집중되는 과부하 현상으로 활동의 효율성과 지속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특히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동북지역은 지방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층의 인구가 적어서 지역사회 리더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재도 부족하였다. '오른팔 프로그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짧은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아닌 6개월 이상 중·장기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20-40대의 인재를 모집한 후 각 지역사회의 리더와 연계시켜주는 일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약 4년 동안 38개의 시정촌(市町村)에 215명의 인재를 파견하여 119개의 지역 부흥 프로젝트를 완료하였다. 완료된 프로젝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도서관 설치 사업, 어촌 재생 프로젝트, 지역 음식 브랜드 구축, 산업재생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이 있다.

1) 리질리언스 역량 구축

ETIC의 '오른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오른팔 프로그램'은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38개의 시정촌(市町村)과 215명의 참가자들이 '오른팔 프로그램' 네트워크에 의해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지역사회 구성원인 프로그램 참가자 역시 대학생, 사회인, 기업가, 활동가, NPO 등으로 다양하였다.



〈그림 3〉 오른팔 프로그램 연계 구조

〈그림 3〉의 ETIC의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 경로의 성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사회의 활동 리더와 '오른팔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활동을 지원하고 경험을 전달하는 관계의 경로를 형성하고 있다. 자원봉사들의 활동 지원은 일방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지지만, '오른팔 프로그램'의 경우 활동 참가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고, 활동 리더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크 경로를 살펴보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정보교류 형태의 네트워크 경로와 참가자가 지역에서 새로운 기업을 창업할

경우 '오른팔 네트워크'에 참가경험이 있는 사람 중 활동 성향이 맞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인재뱅크를 통한 인력 네트워크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크 경로의 성격도 다양하므로 네트워크의 예비경로들이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광역적 지역사회 간 연계 효과

본 연구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역 문제 및 변화에 대응하면서,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충격과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으로 리질리언스를 정의하였다. '오른팔 프로그램'이 지역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역문제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충격과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역 문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본 대지진으로 물리적·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동북지역 내 지역사회 부흥을 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젊은 세대의 수가 증가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15명의 '오른팔 프로그램' 참가자 중 약 62%가 동북지역에 남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동북지역 내 지역들은 모두 지방 도시로서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도 지역의 활력도가 낮고 젊은 세대가 적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역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북지역에 남아 활동을 전개한 사람들 중 약 39%는 '오른팔 프로그램'으로 참가했던 기업 및 활동단체에 정식으로 취업을 하였고, 약 13%는 다른 동북지역 내 기업에 취업을 하였다. 약 10%에 해당하는 15명은 동북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다. 동북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한 비율은 전체의 약 37%였으며 동북지역과 연계된 기업에서 근무 하거나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였으며 비영리조직 등에 취업하였다.

둘째, '오른팔 프로그램'을 통해 동북지역 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였다. '오른팔 프로그램'에서 전개된 각 프로젝트들의 총 매출액은 2015년 기준 연간 약 7.300(약 7억 3천만 원)이다. '오른팔 프로그램' 시작 시 월 매출액이 약 274万円(약 2천 8백만 원)이었는데, 2015년 8월 기준 약 609万円(약 6천 일백만 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하였다.

'오른팔 프로그램'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문제와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오른팔 프로그램'은 대규모 재난 직후 전개된 활동이다. '오른팔 프로그램'은 비영리조직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대규모 재난이나 새로운 지역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자체의 역량이나 예산규모와 상관없이 현재와 같이 지역사회 인재들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지원 시스템

'오른팔 프로그램'은 비영리조직인 ETIC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주로 ETIC의 기획과 지원을 통해 전개된다. 프로그램 운영단계별로 ETIC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참가자 모집단계에서 ETIC의 코디네이터는 각 지역사회의 리더와 함께 '오른팔 프로그램'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목적과 미션을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이후 참가자를 모집하고 프로젝트 성격과 참가자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참가자들을 적절한 지역에 배치한다.

두 번째 '오른팔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활동 단계에서는 교육과 상담을 위주로 참가자들을 지원한다. 참가자가 6개월에서 1년 동안 지역사회 리더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안 ETIC의 코디네이터는 정기적으로 참가자와 상담시간을 마련하고, 관련분야의 전문가·기업가 등을 초청하여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나 현장 답사 등을 추진한다. 오른팔 참가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연 3회 정도 합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합숙을 통해 오른팔 프로그램의 참가자들(YB)과 선행 참가자들(OB)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을 함께 모색한다.

세 번째는 '오른팔 프로그램' 활동 완료 이후 단계로 취업이나 창업 등과 관련된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ETIC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인재뱅크 등록을 통해 오른팔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인재뱅크는 스타트업, 사회경제기업 등에 특화된 구인 사이트로 지역에서 활동을 전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가치관과 비전을 가진 동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인재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TIC 운영은 개인,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대학기관 및 사회단체 등의 지원과 연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3. 소결: 지역사회 연계 체계 비교

본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다양한 지역사회들의 연계를 통해 리질리언스 역량의 구축 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두 번째는 리질리언스 역량이 제대로 발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광역적 지역사회 연계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지역 문제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충격과 재난에 동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지역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하였다. 위 세 가지 관점을 토대로 산업자원을 매개로 구축된 쿠로시오 네트워크 사례와 비영리조직의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사회들의 연계 사례를 고찰하고 그 내용을 〈표 5〉에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가지 사례 모두 지역사회들의 광역적 연계를 통해 리질리언스 역량인 다양성과 네트워크 예비경로를 구축하였다. 광역적 지역사회 연계에서 다양성과 네트워크 예비경로의 구축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사회 간의 연계 체계가 일부 파괴되더라도 다른 지역사회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두 사례 모두 30여개 이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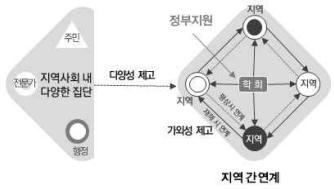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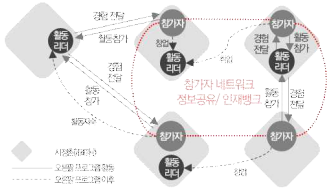
지자체들이 지역사회들 간의 연계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고, 지역사회 활동 주체들의 성격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네트워크 예비경로 측면에서도 지역사회들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과 두 가지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지역사회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유사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연계 효과 측면에서 두 사례 모두 현재와 미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쿠로시오 네트워크에 속해있는 지역사회들의 경우 카츠오 관련 산업 활성화와 지역 방재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하고 연계활동을 전개하였다. ETIC의 '오른팔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운영 측면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들의 부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지역사회 리더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각 활동의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사회 리더가 현재 지역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활동의 주제가 되었다. 이를 통해 '오른팔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들 중심으로 전개된 것을 확인하였다. '오른팔 프로그램'은 비영리조직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해도 지자체 역량이나 예산 등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미래 발생 가능한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세 번째는 지원 시스템 측면에서 두 사례를 고찰하였다. 산업자원 중심의 쿠로시오 네트워크는 카츠오 학회를 통해 활동을 지속하였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활용하여 활동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인적자원 중심의 '오른팔 프로그램'은 비영리조직의 활동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광역적 지역연계를 통한 리질리언스 구축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지역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리질리언스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다양한 지역사회들이 복수의 연계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연계활동을 전개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은 행정을 비롯하여 민간차원의 다양한 사회집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연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여야 하고, 지역사회 간의 연계경로는 다양하게 설정해야 한다. 일부 연계경로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지역 간의 연계 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의 지역사회 연계는 상호 발전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현재 직면한 문제 해결과 향후 발생 가능한 재난 및 산업 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를 지속하기 위해 행정 및 전문기관 등의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표 5〉 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리질리언스 구축 현황

구분		① 쿠로시오 네트워크	② ETIC 오른팔 프로그램
리질리언스 역량 구축	다양성	·다양한 지역사회 간 연계 - 35개 지역협의회 ·지역사회 성격 다양 - 주민, 전문가, 행정, NPO 등	·다양한 지역사회 간 연계 -38개 시정촌, 215명 참가자 ·지역사회 성격 다양 -대학생, 사회인, 기업가 등
	네트워크 예비경로	·복수의 지역사회와 상호적인 연계체계 구축 ·평상시와 재해 발생 시로 나누어 연계활동 전개	·활동 리더와 참가자 간 상호적인 연계체계 구축 -리더: 경험 전달, 월급 지급 -참가자: 리더의 활동 지원 ·참가자 네트워크 성격: 정보 공유 목적, 인재 채용 목적
	개념도		
지역사회 연계 효과		·현재 문제 대응: 지역사회 여성들 활동 강화, 카츠오 산업 활성화, 카츠오 관련 정보 공유 ·미래 문제 대응: 방재 네트워크 구축(구호물품 전달 등)	·현재 문제 대응: 지방도시에 젊은 세대 유입, 지역활성화 기여 ·미래 문제 대응: 지역에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해도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
지원 시스템		·카츠오 학회: 주요 활동 기획 ·중앙정부: 활동 예산 지원	·비영리조직(NPO)의 활동지원

V. 결론

본 연구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지역의 리질리언스 구축 가능성과 그 효과를 진단하고, 국내의 지역사회 연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통된 산업자원인 카츠오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례와 일본의 비영리조직에서 인적자원을 통해 지역사회를 연계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두 사례 모두 리질리언스 역량인 지역사회 다양성과 네트워크 예비경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역문제와 미래 발생 가능한 지역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전개하였고,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확인하였다.

국내에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리질리언스 구축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다양한 성격의 지역사회들이 연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민간중심의 교류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역연계는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들 간의 연계 목적이 다양해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가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행정은 가

능성 있는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리질리언스 역량을 고려한 지역연계 활동을 직접 추진할 수 있다. ETIC의 '오른팔 프로그램'과 같은 시스템은 국내에서 바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거버넌스 구축을 지향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들 간의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 등을 시도하여 그 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

본 연구는 광역적 지역사회 연계가 리질리언스 역량 구축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동시 대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지만 국내의 광역적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사례를 대상으로 후속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의 연구들이 네트워크 이론을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다양성과 네트워크 예비경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와 구조를 제안한 반면, 본 연구는 사례연구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광역적 지역사회 연계 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간의 관계 구조 형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강상준·조성한·홍순영. (2013). 「자연재해로부터의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도입방안」, 경기: 경기연구원.

국립방재연구원. (2012). 「지역사회 방재 리질리언스 프레임워크 개발」, 서울.

김정곤·임주호·이성희. (2016). 「리질리언스(Resilience) 도시재생 모델에 관한 연구」, 대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문영규·서승현. (2009). 복잡계 구조 하의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 방안. 「한국공공관리학보」, 23(3): 121-144.

문창용·나주몽. (2013). 대학 캠퍼스 외부시설의 공간적 특성이 지역커뮤니티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용봉캠퍼스를 사례로. 「지역개발연구」, 45(2): 109-138.

박은병·박윤재. (2012). 한중일 지자체간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계획」, 47(7): 59-76.

전대욱·최인수. (2014). 공공정책의 생태계 조성 전략과 회복력(resilience)의 개념적 적용. 「지방자치 FOCUS」, 86: 4-25.

전대욱. (2015). 지역공동체 회복력(Community Resilience)의 개념과 적용방안. 「국토」, 34-39.

전유미. (2016). 「도시기본계획에 나타난 도시회복력 수준에 관한 비교분석: 인구 100만이상의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정은주·정봉현·나주몽. (2016). 도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과 리질리언스(Resilience) 에

관한 연구.「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4): 87-108.

최남희. (2015). 새로운 지역개발전략으로서의 회복탄력성의 요소와인과순환적 원형구조에 관한 연구.「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6(4): 155-178.

최병두. (2015). 네트워크도시 이론과 영남권 지역의 발전 전망,「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1-20.

최성태. (2012).「주민중심의 주거지재생 방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최정민. (2013). 일본 도시민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도농교류 형태 및 의식에 관한 한일 인식 차이 비교.「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5(2): 41-51.

하수정 외. (201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의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경기: 국토연구원.

早田宰. (2015). コミュニティ・レジリエンスの適用可能性キャパシティ: 2011年津波後の日本沿岸地域の分析. In 震災後に考える (pp.586-596). 東京: 早稲田大学出版部.

前田昌弘・高田光雄・森重幸子・西野克裕. (2015). 京都市都心部における地蔵盆の運営実態と参加者の多様性.「日本建築学会計画系論文集」, 80(714): 1833-1842.

ADB. (2014). *Urban climate change resilience*.

Adger, W. N. (2003). Social capital, collective action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Economic Geography*, 79: 387-404.

Baek, J. S., Meroni, A., & Manzini, E. (2015). A socio-technical approach to design for community resilience: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design goal forming. *Design Studies 40*, 60-84.

Bruneau, M., Chang, S. E., Eguchi, R. T., Lee, G. C., O'Rourke, T. D., Reinhorn, A. M., & Von Winterfeldt, D. (2003). A framework to quantitatively assess and enhance the seismic resilience of communities. *Earthquake spectra*, 19(4): 733-752.

Da Silva, J., & Morera, B. (2014). City resilience framework. Arup & Rockefeller Foundation.

Folke, C. (2006). Resilience: The emergence of a perspective for social-ecological systems analyses. *Global Environmental Change*, 16(3): 253-267.

Foster, K. A. (2007). *A Case Study Approach to Understanding Regional Resilience*.

Galderisi, A. (2014). Urban resilience: A framework for empowering cities in face of heterogeneous risk factors. *ITUA/Z*, 1 (11): 36-58.

Godschalk, D. R. (2003). Urban hazard mitigation: creating resilient cities. *Natural hazard review*, 4(3): 136-143.

Holling, C. S. (1973). Resilience and stability of ecological system. *Annual review of ecology and systematics*, 4(1): 1-23.

Jung, K., & Song, M. (2015). Linking emergency management networks to disaster resilience: bonding and bridging strategy in hierarchical or horizontal collaboration networks. *Quality & Quantity*, 49(4), 1465-1483.

Jung, K. (2017). Sources of Organizational Resilience for Sustainable Communities: An 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Perspective. *Sustainability*, 9(7): 1141.

Jung, K., Song, M., & Feiock, R. (2017). Isolated and Broken Bridges from Interorganizational Emergency Management Networks: An Institutional Collective Action Perspective. *Urban Affairs Review*, 1078087417690257.

O'Rourke, T. D. (2007). Critical infrastructure, interdependencies, and resilience. *BRIDGE-WASHINGTON-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37(1): 22.

Pisano, U. (2012). Resilie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of resilience, systems thinking. *European Sustainable Development Network (ESDN)*, 26: 50.

Spaans, M., & Waterhout, B. (2017). Building up resilience in cities worldwide–Rotterdam as participant in the 100 Resilient Cities Programme. *Cities*, 61: 109-116.

Tobin, G. A., Whiteford, L. M., Murphy, A. D., Jones, E. C., & McCarty, C. (2014). *Modeling social networks and community resilience in chronic disasters: Case studies from volcanic areas in Ecuador and Mexico. In Resilience and sustainability in relation to natural disasters: A challenge for future cities (pp. 13-24).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Walker, B., Carpenter, S., Anderies, J., Abel, N., Cumming, G., Janssen, M., ... & Pritchard, R. (2002). Resilience management in social-ecological systems: a working hypothesis for a participatory approach. *Conservation ecology*, 6(1).

Yanez, K., & Kernaghan, S. (2013). Briefing: Visions of a resilient city.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Urban Design and Planning*, 167(3): 95-101.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홈페이지: http://www.mlit.go.jp

일본 카츠오 학회 홈페이지: http://www.katsuo-gakkai.jp

ETIC 홈페이지: http://www.etic.or.jp

宮古毎日新聞 홈페이지: http://www.miyakomainichi.com/2013/11/56773

접수일(2017년 11월 17일)
수정일(2017년 12월 02일)
게재확정일(2017년 12월 07일)